

# 미국도 코로나19 비상...두번째 사망자 발생

### 첫 사망자와 같은 지역 거주 시애틀 요양시설 10명 확진 위중한 환자 3명 더 있어 동부 뉴욕서도 첫 확진자

이 속출하면서 시애틀 외곽에 있는 커플랜드가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일어난 해당 요양시설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요양시설 거주자 27명과 직원 25명도 코로나19 증세가 있다고 호소했으나, 증세가 독감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감염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이 요양시설을 방문한 소방관들을 격리 조치하면서 이 작은 도시의 소방관 4분의 1이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근처의 한 대학은 캠퍼스를 소독했으며 지역 병원들은 방문객들의 방문을 금지했다. 이날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도 첫 확진자가 보고돼 동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트위터를 통

해 최근 이란을 방문한 3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호흡기 관련 증세가 있지만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며 뉴욕에 은 뒤 통제된 상황이었다고 쿠오모 주지사는 밝혔다. 앞서 로드에일랜드주에선 최근 이탈리아 등 유럽을 여행한 한 40대 남성도 코로나19 '추정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 워싱턴 주 커플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 케어 센터'에서 1일(현지시간) 의료진이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두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과 킹카운티 보건 당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망한 70대 남성이 미국 내 두 번째 코로나19 사망자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CNN 방송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가진 이 남성은 워싱턴주 커플랜드의 장기 요양시설인 라이프케어센터에 있다가 에버그린 헬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됐던 요양시설의 소재지인 커플랜드에 거주했다.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에서 지금까지 10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중 두 번째 사망자를 포함한 6명이 라이프케어센터 입주자거나 직원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에버그린 헬스병원에 위중한 환자 3명이 더 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에서 2명이 숨지고, 확진자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22> 증공

증공(曾鞏, 1019-83)의 자는 자고(子固)로 현 강소성 남풍현에 해당하는 건장 남풍 출신이다. 북송 인종, 영종, 신종 때 활약한 정치인으로 왕안석, 유종원, 소식 등과 함께 당송팔대가의 일인이다. 증조, 증포 등 증씨 형제와 더불어 남풍칠증(南風七曾)으로 불린다. 12세때 육론(六論)을 쓸 정도로 영민했고 시문에 능했다. 과거에 늦게 합격해 관직 진출이 늦었다. 1057년 소식, 소철과 함께 진사시에 합격했는데 시험 주재관이 구양수였다. 그 인연으로 구양수가 주창한 고문(古文) 부활 운동에 일익을 담당했다. 형식미에 치우친 변려문 대신에 창작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고문을 부활하려는 운동에

누락한 사람들을 찾아내 공사에 투입해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교량도 부설해 물자와 사람간 이동이 편하도록 하였다. 역참(驛站)도 적절히 통합해 비용을 줄였다. 임기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려하자 백성들이 다리를 끊고 문을 걸어 달아 못가게 하였다. 아간에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가 부임한 주들은 풍속이 거칠고 유지들의 입김이 강해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그가 부임해서는 명령이 정확히 집행되었고 서리들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업무가 지체되지 않고 감옥에 수감된 죄수도 크게 줄었다. 처음에는 그의 조치가 엄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게 느꼈다.

인종때 요나라에 대한 세폐나 관리에 대한 북풍 등으로 국가재정이 어려

## 북송 정치인...당송팔대가의 일인

왕안석, 소식, 소철 등과 함께 적극 참여했다. 태평주 사법잡군을 거쳐 중앙에서 편교사관서적, 관각교감, 집현교리, 영종실록검토관으로 재직했다. 지방관으로 나가서 월주와 통주의 통판, 제주, 양주, 훈주, 박주 등의 지주를 역임했다. 부임지에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존경을 받았고 치적을 올렸다.

월주의 통판(通判)으로 재직 중 흉년이 들었다. 관이 보유한 상평창만으로는 백성을 구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유층을 불러 15만석의 식량을 확보했다. 이를 상평창 가격보다 약간 높게 백성들에게 팔았다.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곡식 가격도 오르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종자도 대여해주어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제주 지주로 재직할 때는 도적이 성행하는 것을 막고 백성들에게 너그럽게 대했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편안해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공직관이였다. 같우려는 도둑이 민간을 많이 괴롭혔는데 어느날 스스로 관아에 출두했다. 그를 후하게 대해 휘하의 도적들이 자수하도록 유도했다. 제주의 풍속이 거칠었지만 지방 유력자들이 전횡하지 못하도록 해 도적들이 지취를 감추었다. 신법개혁이 반포되자 요령 있게 실시해 백성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황하를 준설하는 업무가 떨어지자 장부에

위지사 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상주했다. 인종은 그의 의견이 옳다며 받아들였다. 신종이 그의 자질을 높이 사 "증공은 사학(史學)에 자질이 있다고 사대부 사이에 평판이 나 있으므로 이전 황제의 역사 편찬을 담당시켜야 한다"며 수찬으로 기용했다. 편찬을 완료하기 전에 중서사인으로 발탁되었다. 허루에도 수십명의 관직이 제수되는데 임무를 잘 처리했다. 조정 중신들이 삼대(三代)의 풍모가 있다고 칭찬하였고 신종 또한 높이 평가하였다.

신종이 왕안석에 대해 하문했다. "경은 왕안석과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답하기를 "왕안석은 문학과 의지는 뛰어났지만 인색합니다. 그런 점에서 옛 사람만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이 반박하기를 "왕안석은 부귀를 가볍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인색하지 않소." 증공이 답하기를 "왕안석은 행동에는 융합하지만 허물을 뉘우치는데는 인색합니다." 신종이 고개를 끄덕였다.

왕안석과 함께 신법당의 일원이었지만 신법이 너무 급하게 시행되는 것에 반대했다. 왕안석에게 편지를 보내 임금에 조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인품이 수수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아 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시문집으로 원풍류 50권, 녹원풍류 40권, 용광집 30권이 전해진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 '백인 오바마' 꿈 꺾이다

### 부티지지, 美민주 경선 하차 "현시점 트럼프 꺾을 최선책"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38)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경선 시작 한 달 만에 중도 하차했다.

부티지지 후보 캠프는 1일(현지시간) 부티지지 전 시장이 향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우스벤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아이오와 경선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하며 신성으로 떠올랐던 부티지지 전 시장은 전날 열렸던 4번째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한 자릿수(8.2%)의 저조한 득표율로 4위에 그치지자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나의 목표는 언

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기 위해 미국인들이 단결하도록 돕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의 현시점에서 이런 목표들에 대한 신념을 지킬 최선의 방안은 민주당과 미국의 단결을 돕기 위해 비켜서는 것"이란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중앙우대 정치이력이 일천하지만 대권후보로서 다양한 흥행요소를 갖춘 주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하던 도중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유학했고 유명 컨설팅업체인 매켄지 앤 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대선후보가 되면서 미국 사회가 지향하는 다양성과 소수자 존중의 표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한국발 입국 금지·제한 80개 국가로 늘어

### 미국 출국·입국 시 의료검사 중국 14개 성·시 격리 조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다수 국가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일 오후 9시10분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80곳이다. 전날 밤보다 1곳 줄었다.

당초 앙골라를 '입국금지국'과 '입국절차 강화국'에 중복해 올렸던 외교부가 앙골라를 입국금지국으로만 분류했기 때문이다.

앙골라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오는 3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6곳, 입국은 허용하지만, 격리 등 검역을 강화한 곳은 중

국을 포함해 44곳이다.

당초 입국금지국에 포함됐던 라오스는 입국절차 강화국으로 재분류됐다. 라오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 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으면 3회에 걸쳐 검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총 26개(타이완성 제외)의 도시 가운데 절반을 넘는 14개가 강화된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출발한 내외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하는 상하이시부터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을 14일간 지정호텔에 격리하는 하이퉁성까지 지방정부마다 조치가 상이하다.

미국은 아직 입국제한을 하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고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하도록 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연합뉴스

# 815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주택 보유에 가중세 2.4%~4.4%로 환율 2% 인하
- 3~4억 이상 보유 45세 이상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 지역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p>문흥지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 576-4150</p>
----------------------	----------------------	----------------------	-----------------------	----------------------	----------------------